



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보험산업 리스크 요인

손민숙 연구원

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요국 보험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운용자산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보험금 청구 증가, 수익성 하락 및 운영 리스크 증가 등이 예상됨. 또한 보험금 청구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테러 및 정치적 위험, 재산 피해 확대, 절도 및 범죄 증가 등 2차적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. 한편 최근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으나 추가적인 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, 세계 공급망(Global supply chain) 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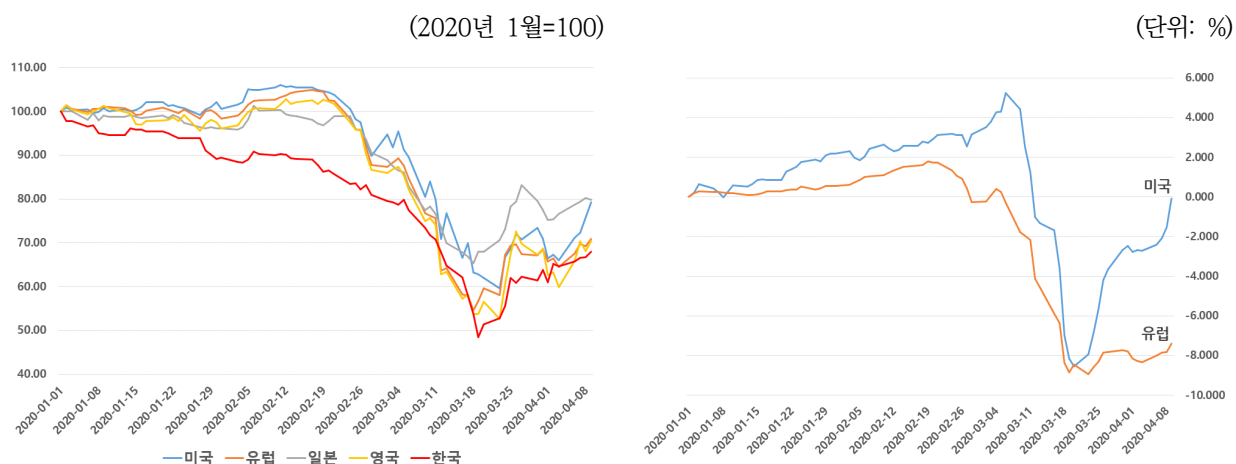
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요국 보험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운용자산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보험금 청구 증가, 수익성 하락 및 운영 리스크 증가 등이 예상됨

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3월 말~4월 초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주가가 30%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¹⁾
-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구성은 장기 국채 및 회사채에 집중되어 있어 상당한 투자 손실이 발생함
 - 단,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, Federal Reserve Board)의 회사채 지원에 따라 3월 말 이후 상황이 개선됨
-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DBRS Morningstar는 보험회사에 대한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로 보험금 청구 증가,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, 파산 가능성 상승 및 운영리스크 증가와 같은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²⁾

1) IMF(2020. 4), *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*

2) DBRS Morningstar(2020. 3. 5), "Coronavirus Disease (COVID-19) Impact on Life Insurers More Likely to Result from Adverse Market Movements than Increased Claims"

〈그림 1〉 국가별 보험회사 주식 가격(좌) 및 포트폴리오 예상 손익(우)



자료: IMF(2020. 4), *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*

■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벤트 취소 보험, 무역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여행보험 등이 문제 될 수 있음³⁾

- 세계보건기구(WHO)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고,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한 다양한 보험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⁴⁾
 - Lloyd's는 코로나19를 대재해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며, 향후 14가지 형태의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예측함⁵⁾
-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연금 수혜자의 조기 사망으로 자연 헛지가 가능할 수 있음
- 일반적인 이벤트 취소 보험은 감염병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나, 연쇄 효과로 인한 취소 또는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음
 - 현재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이벤트 취소는 도쿄 올림픽 취소로, 재보험사인 Swiss Re와 Munich Re가 각각 2억 5000만 달러,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⁶⁾
- KPMG는 110억 달러 규모인 무역신용보험 시장 내에서 기업들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수 있으며, 사용자가 직원 보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⁷⁾
- 여행보험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품 형태 중 하나이며, 영국보험협회(ABI,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여행보험 관련 2억 7500만 파운드의 보험금 지급을 예상함⁸⁾

3) Regulation Tomorrow(2020. 4. 9), "The insurance sector and COVID-19 - how has the pandemic affected the UK market?"

4) Insurance Journal(2020. 4. 9), "Anticipated Coronavirus Claims Scenarios Across Major Coverage Lines: Viewpoint"

5) Insurance Journal(2020. 4. 6), "COVID-19 Claims to Hit Lloyd's on Multiple Lines, Says CEO Neal"

6) Reinsurance News(2020. 3. 24), "Re/insurers brace for economic impact of Olympics delay"

7) KPMG(2020. 3. 25), "Do insurers have COVID-19 covered?"

8) ABI(2020. 3. 24), "COVID-19 - Travel insurers expect to make record payouts to customers"

■ 보험금 청구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테러 및 정치적 위험, 재산 피해 확대, 절도 및 범죄 증가 등 2차적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⁹⁾

- 국제기구 및 조직을 통한 전 세계적 대응이 가능하나 테러 및 정치적 위험이 존재하며, 전문가들은 의료시설 및 항바이러스제, 백신 보유의 격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
- 소방 서비스와 같은 긴급 구조 서비스 및 전기, 수도, 가스 등 공공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재산 피해 청구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, 손실 증폭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
- 공급망의 타격으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식량 부족 및 불경기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절도 및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음
 - 집단 테러의 경우 면책이 가능하나, 산발적 범죄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면책이 불가할 수 있음

■ 한편 최근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으나 추가적인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, 세계 공급망(Global Supply Chain) 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수 있음

- 과거 팬데믹 사례인 스페인 독감(1918년), 아시아 독감(1957년) 및 홍콩 독감(1968년) 등을 감안할 때 2차, 3차의 추가적인 유행이 가능하며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 수 있음
- 경제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때 과거와 달리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(GVC, Global Value Chain)의 선두에 있으며 경제 규모 및 소비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¹⁰⁾
 - 현재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공급망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며, 전례가 없음
 -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¹¹⁾
- 미국 보험감독관협회(NAIC,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) 및 보험정책연구센터(CIPR,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)는 팬데믹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고려한 산업 구조 형성이 필요하며,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함¹²⁾ **kiri**

9) Lloyd's(2008), "Pandemic-Potential Insurance Impacts"

10) Lloyd's(2008), "Pandemic-Potential Insurance Impacts"

11)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미국은 '본국 회귀 정책(Re-shoring)'을, 일본은 '중국 외 대체지 모색(China Plus One)'을 추진하고 있음

12) NAIC·CIPR(2020. 4. 15), "The Risk of Pandemics to the Insurance Industry"